

3월 자동차 생산·내수·수출 동반 감소

車 생산 10.7% ↓ ...내수 1.5% · 수출 10.3% 동반 감소
한국GM 57.6% ↓ · 르노삼성 25.8% ↓ ...내수 하락 주도



해외재고조정과 조업일 감소로 인해 지난달 자동차 생산과 내수, 수출이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해외 재고조정과 수출 감소에 따른

생산량 조절, 조업일수 1일 감소 등으로 3월 국내 자동차 생산은 전년 동월대비 10.7% 감소한 36만457대를 생산했다

한국GM이 내수 부진 등으로 25.4% 감소한 4만1742대를 생산했

다. 쌍용은 렉스턴 스포츠의 신차호 과에도 주력 모델인 티볼리의 수출 부진 등으로 15.7% 줄어든 1만357대 생산에 그쳤다. 현대차는 9.3% 감소한 15만2223대를 생산했다

내수는 수입차가 증가했지만 중대형 트럭의 수요가 줄고 신차 출시 영향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5% 감소한 16만6481대를 기록했다.

수입차는 벤츠, BMW 등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비롯해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판매 재개 등으로 14.2% 증가한 2만7605대가 판매됐다. 현대차도 신형 싼타페의 본격 출시 영향으로 6.0% 증가한 6만7577대를 집계했다. 다만 한국GM과 르노삼성이 각각 57.6%, 25.8% 감소하면서 내수 하락세를 주도했다.

수출은 신차 출시를 앞둔 기존 모델의 감소, 미국지역 재고조정 등에 따라 지난해 3월보다 10.3% 줄어든 22만3855대로 조사됐다. 쌍용은 주력모델 티볼리의 중동, 유럽지역 부진으로 43.5% 감소한 2126대 수출에 그쳤다. 현대도 싼타페, 맥스루즈 등 기존 모델의 부진으로 16.5% 감소한 8만2302대를 수출했다. 다만 르노삼성은 نيسان, 그외 북미시장 판매호조로 1만9259대를 수출하면서 30.4% 증가했다. 친환경차는 현대의 그랜저HEV, 아이오닉EV 등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수입차를 포함해 37.9% 증가한 9372대를 판매했다. 또한 아이오닉과 니로 등 친환경 전용 모델의 호조로 29.2% 증가한 1만9290대를 수출했다. 한편 지난달 자동차 부품 수출은 북미와 아시아지역에서 완성차 판매 및 현지 생산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 감소한 19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주)광주신세계

일자리 관련 상호협력 업무협약

(주)광주신세계(대표이사 최민도)가 일자리안정자금 확산과 일자리 창출 상호 협력을 위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신세계 8층 커뮤니티 라운지에서 개최된 이번 협약식에는 김영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과 최민도 (주)광주신세계 대표를 비롯한 내빈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업계 최초 주 35시간 근무제 시행을 통해 워라밸에 적극 앞장서고 있는 광주신세계가 일자리와 관련된 기업의 역할에 동참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광주신세계는 일자리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협력회사와 상생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주)광주신세계의 구인수요에 적합한 인재 채용을 위한 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홍보를 위해 노력 한다

이런 협약의 주요 내용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채용박람회 행사 및 '일·생활균형(워라벨)캠페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며, 협약 내용에 따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4월 11일 광주신세계 지하 2층 직원식당에서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및 접수, 구인상당 등을 위한 고용지원센터 운영한다.

김영미 청장은 "협약체결을 통해 고용안정화,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기업문화 개선 등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민도 광주신세계 대표는 "워라벨의 선두주자인 광주신세계는 직원들이 즐거운 직장 생활과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페이퍼워크·회의 최소화, 보고 간소화 등 업무문화 개선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반려동물 상품 매출 3조 시대...업계 '주목'

GS샵, 반려동물 전용관 · CU, '하울고' 운영 매출 급증

유통업계 반려동물 관련 콘텐츠가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Pet+Family)'이 1000만명에 달하는 사회분위기에 맞춰 업계도 관련 상품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CU도 올 초 반려동물 용품 브랜드 '하울고'를 론칭한 이후 관련 상품들의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GS샵, CU편의점 등은 반려동물 관련 매출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다각도로 상품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하울고를 선보인 1월 이후 올해 2~3월 두 달간 반려동물 용품의 매출은 전년 대비 58.0% 올랐다. 1월의 매출성장률이 22.2%에 불과한 것과 대비하면 그 증가폭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이다.

GS샵은 '반려동물 전용관'을 모바일에서 선보였다. GS샵은 지난 2일 '반려동물 모바일 전용관'을 내놓은 뒤 이미 큰 매출성장을 기록했다. 첫 오픈한 후 10일까지 순방문자수(UV)는 전년 대비(일반 반려동물 상품 대상) 170% 늘었고, 매출은 100% 증가했다. 협력사별로 전월비 매출 성장률은 400~600%에 달한다.

CU측은 이같은 매출 증가 이유에 대해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긴다는 의미의 펫팸족(Pet+Family)이 1000만명에 달하는 등 사회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내년이면 반려동물 산업 규모가 3조원을 돌파하고 2025년 5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

롯데백화점 광주점 오늘부터 19일까지 홍어 특별 판매

시중 가격대비 20% 할인...생산자 어려움 해소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전라도 대표 수산물로 향토적이고 지역 문화를 잘 대변하는 홍어 특별 기획전을 식품관에서 13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다

홍어는 전라도에서 잔칫집이나 상갓집의 음식상에 꼭 올라가야 하는 생선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어획량이 급감해 가격이 크게 올랐다.

신안수협과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함께 기획해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직접 선보이고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

해 마련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흑산도 수협으로부터 원산지 증명카드를 부여 받은 정품 홍어를 판매하며, 사전 기획을 통해 시중가격보다 20% 이상 할인된 가격이다.

홍어 1파리(7kg 이상)에 48만원이며, 부위별(100g당 1만4500원)로 해체해 판매도 한다.

삼합용 탕·찜용 식힌 홍어, 사하지 않은 홍어 등 용도별로 다양하게 판매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특별 시식관'도 운영해 흑산도 홍어의 맛과 품질의 우수성을 알리며 7인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을 증정한다.

13일 오후 2시에는 대형 흑산도 홍어를 해체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전라도 대표 수산물로 향토적이고 지역 문화를 대변하는 홍어 특별 기획전을 식품관에서 13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다

전남우정청, '생활정보홍보우편' 온라인 서비스 오픈

전국 2000만개 주소 데이터 활용 원하는 지역 배달

전남지방우정청(청장 정진용)은 기존에 우체국 창구에서만 접수하던 생활정보홍보우편 서비스를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생활정보홍보우편은 광고전단, 카

달로그 등 홍보물을 가정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배달해 주는 서비스로, 지난 해에는 9,460만통의 생활정보홍보우편물이 전국 각지로 배달되었다

주이용 고객은 사업홍보가 필요

한 신규 창업자나 지역기반 소상공인이며, 전국 2000만개의 주소 데이터를 활용하여 원하는 지역과 홍보대상을 직접 선택해 발송할 수 있으며 1천 통 이상부터 접수할 수 있다.

정진용 전남지방우정청장은 "생활정보홍보우편 온라인 서비스 오픈으로 광주·전남 지역에서 창업하는 청년들과 소상공인들이 더욱 편리하게 우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우체국은 창업 청년들과 소상공인의 홍보파트너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구감리마케팅조경관리팀 전인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